

일본 미디어의 동일본대지진 원자력발전소 사고관련 어휘 선정 및 구사에 관한 연구*

- 후쿠시마와 타국의 원자력발전소 사고기사의
보도태도에 대한 비교·대조를 중심으로 -

김유영**
yuiyu1004@dongduk.ac.kr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4. 본론 |
| 2. 선행연구 및 문제제기 | 5. 결론 및 금후의 과제 |
| 3.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 |

主題語 : 동일본대지진(2011 Tōhoku earthquake and tsunami),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신문(Newspaper), 보도태도(Reporting perspective), 재난보도(Disaster-related Reporting), 어휘(Lexicology)

1. 들어가며

2011년 3월 11일 일본에는 미증유의 거대한 대지진(이하, 동일본대지진)¹⁾과 쓰나미가 발생하여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혔다. 수많은 가옥과 전답이 파괴되어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으며, 엮힌 데 덮친 격으로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의 전력 공급이 차단되면서 수소폭발까지 일어나, 재난 지역의 주민들은 방사능 오염을 피해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진과 쓰나미가 원자력발전소 사고(이하, 후쿠시마 원전사고)²⁾로 확대되었다는 사실은, 동일본대지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8019814)

** 동덕여자대학교 일본어과 조교수

- 1)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東北地方太平洋沖地震)으로, 2011년 3월 11일 14시 46분 경 발생한 규모 9.0의 초대형 지진을 가리킨다.
- 2)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事故)로, 2011년 3월 11일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으로 인해 진도 9의 지진과 지진 해일로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진이 일본의 특정 지역에 국한된 재난이 아니라, 일본 전체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적 문제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동일본대지진이 인류 공통의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일본의 미디어의 보도와 일본 정부의 발표는 전 세계의 미디어의 보도 양상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베 일본 총리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방사능 물질이 완벽히 통제되고 있다'는 공언과는 달리,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약 6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에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은 완전히 수습되지 않았으며, 방사능 물질에 대한 통제 또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듯이 보인다. 예를 들자면 일본 정부와 일본의 미디어가 발신하는 정보와 보도는 확연한 온도차를 느낄 수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 당사국 일본 내에서도 다음 (1)과 같은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1) “日本の報道は権力側の発表を批判することなく『安全だ』と報道してきた。”³⁾

上杉隆・鳥賀陽弘道『報道災害【原発編】』幻冬舎新書、2011:54

실제로 2011년 3월 11일 이후, 일본 사회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는 통계자료가 있는데, 이는 일본 정부에 대한 신뢰이자 미디어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노무라종합연구소(野村総研)가 3월 19일부터 3월 20일에 걸쳐 실시한 <지진에 따른 미디어 접촉 동향에 관한 조사(震災に伴うメディア接触動向に関する調査)>에 의하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에 대하여 ‘신뢰도가 저하됐다’고 대답한 사람이 28.9%로 약 30% 가까운 사람들이 일본 정부와 미디어에 대해 신뢰를 잃어버렸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신문 매체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기사와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일어난 원전사고와 관련된 기사에 사용된 핵심 어휘의 양상을 비교 분석하여, 일본 미디어의 자국의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보도 태도와 그 존재 방식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원자로 14호기에서 발생한 방사능 누출 사고 이 사고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함께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INES)의 최고 단계인 7단계(Major Accident)를 기록.

3) 일본의 보도는 권력자들의 발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2. 선행연구 및 문제제기

2.1 신문 기사의 텍스트 데이터 분석

지금까지 동일본대지진에 관한 선행연구는 NHK 등 일본 내 방송 미디어에 의한 재난 보도의 양상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는데, 예를 들자면 原由美子(2013), 홍선화(2012), 채성애(2011), 이연(2011) 등의 선행연구를 들 수 있겠다. 하지만, 이들 동일본대지진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주된 초점은 재난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나 피해자인 이재민에 맞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본 연구의 주된 주제인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보도 기사의 보도 태도에 관해 고찰한 선행연구는 大島愼子(2012), 藍原寛子(2012) 등을 제외하면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며, 伴埜行則 他(2013), 堀口逸子(2013) 등과 같은 선행연구는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원자력 정책 그리고 보도 중에서도 방송 및 뉴스 미디어의 기사에 관한 고찰이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자의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NIS貿易会(2011), 鈴木雄雅 他(2012) 등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있어서의 동일본대지진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보도 기사에 관한 고찰이 몇몇 눈에 띄지만, 일본 내 미디어에 의한 일본과 타국의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보도 태도를 비교·대조 분석한 사례는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자연히 이와 관련된 연구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날 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신문 기사를 조사하고 그 기사 안에 수록된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연관된 어휘를 추출하고 이를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한 논문은 본 연구자의 조사에 따르면 찾기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신문 기사에서 어휘의 사용은 매우 민감하고 사용 어휘는 기사의 성격과 방향을 규정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문 각 사는 어휘 선택에 신중을 기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정작 花田達朗(2012) 등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기사의 면적이나 기사의 숫자 등에 집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사고 보도에서 사용된 어휘에 관해 집중적으로 계량적 고찰을 실시하여 이를 일본과 타국에서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관한 보도 기사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일본 내 신문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대한 일본의 보도태도에 관하여 명확히 하고자 한다.

3.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2)와 같은 조사 대상을 각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일부터 2016년 2월 1일까지에 걸쳐서 수집 및 정제하여, 표1과 같이 해당 텍스트에 사용된 핵심 어휘의 사용 빈도와 변동 추이에 관해 조사를 실시했다.

(2) [조사 대상 텍스트]

- a. 일본의 전국지 4개사(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아사히신문朝日新聞, 니혼케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⁴⁾의 동일본대지진 관련 기사
- b. 일본의 전국지 4개사(위와 동일)의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사고 관련 기사
 - e.g 미국의 스리마일 섬 원자력발전소 사고 관련 기사⁵⁾ - 1979년 3월 28일(발생일)-2016년 2월 1일까지의 전 지면
 - e.g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⁶⁾ - 1986년 4월 26일(발생일)-2016년 2월 1일까지의 전 지면

<표1> 일본 내 원자력발전소 사고관련 신문기사 조사 건수

분류	신문명	기간(2016.02.01까지)	기사 건수	개별어수
후쿠시마 원전사고 (2011.03.11)	日本經濟新聞	2011.03.11~	30,979	13,155,747
	毎日新聞		1,531	1,150,994
	朝日新聞		31,061	15,993,598
	読売新聞		21,964	12,491,802
계			85,535	42,792,141

4) 일본 4대 전국지에 대한 유료 인터넷 신문 데이터베이스(13년12월2일 기준)
 5)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Three Mile Island accident)는 1979년 3월 28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해리스버그 시에서 16km떨어진 도핀 카운티의 서스쿼해나 강 가운데 있는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2호기(TMI-2)에서 일어난 노심 용융(meltdown)사고. 국제 원자력 사건 등급(INES) 체계에 의한 등급 5로 분류.
 6)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Чернобыльська катастрофа)는 1986년 4월 26일 1시 24분(모스크바 기준 시간), 구소비에트 연방 우크라이나 SSR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폭발에 의한 방사능 누출 사고를 가리킨다. 사고 후 소련 정부의 대응 지연에 따라 피해가 확산되어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INES) 7단계(심각한 사고, Major Accident)를 기록.

분류		신문명	기간(2016.02.01까지)	기사 건수	개별어수	
비 非 후 쿠 시 마 원 전 사 고	체르노빌 원전사고 (1986.04.26)	日本經濟新聞	1986.04.26~	2560	1,309,703	
		毎日新聞		1805	1,103,141	
		朝日新聞		6055	4,218,205	
		読売新聞		2326	1,635,946	
	계				879	502,209
	스리마일섬 원전사고 (1979.03.28)	日本經濟新聞	1979.03.28~	304	123,730	
		毎日新聞	1979.03.29~	120	66,007	
		朝日新聞	1984.01.01~	307	207,926	
		読売新聞	1986.01.01~	148	104,546	
	계				19,668	8,769,204
계				19,668	8,769,204	

- 범례) 1. 스리마일 및 체르노빌 기사는 후쿠시마를 제외한 순수 비非 후쿠시마 기사
 2. 스리마일과 체르노빌의 기사 또한 비 중복
 3.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의 기사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오류는 아님
 4. 스리마일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경우, 신문의 DB제공 시작연도의 차이로 각 신문 간 조사 시작 시점에 차이가 있음

3.2 분석 방법

3.2.1 주제별 동일본대지진 기사 분류

우선 일본 동일본대지진과 이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기사를 주제에 따라 몇몇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동일본대지진 관련 기사의 쟁점이 되는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일본 내 사고인지 아닌지에 따라 이러한 주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에 관해서도 알아보하고자 한다.

3.2.2 핵심 어휘 선정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관련된 기사에서 사용된 어휘의 사용 빈도와 추이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사 분석을 실시했는데, 그 핵심 키워드는 다음의 (3)과 같다. 핵심 키워드의 선정 방법은 우선, 신문 기사의 정량평가 결과를 통해 사용빈도가 높은 어휘를 추출하고, 이에 추가하여 정성평가를 수행하여 원전사고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묘사하는 데에 핵심적인 어휘와 표현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또한 이와 같은 어휘를 최종적으로 (3)a부터 (3)f까지

6개 단위로 분류하여 어떠한 핵심 어휘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그 추이는 어떠한가에 관해서도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분석을 실시했다. 단, 핵심 어휘는 기본적으로 단위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으나, 필자의 판단에 의해 더욱 관련성이 높은 단위로 분류했음을 밝혀둔다.

(3) [원자력발전소 사고 관련 기사 핵심 어휘(키워드)]

a. 원전사고 현황 관련 일반 핵심 어휘

방사능放射能(방사선放射線), 오염(汚染), 노심 용해炉心融解(멜트다운, 노심 용융爐心鎔融, 원자로 용해原子爐鎔解), 수소폭발(水素爆発), 플루서멀(プルサーマル), MOX(MOX연료燃料), 임계사고(臨界事故),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國際原子力事象評價尺度(INES),⁷⁾ 피난(避難), 대피(退避), 안전권(安全圈), 선량(線量), 위험(危險), 통제(統制) 등

b. 건강 관련 핵심 어휘

피폭(被曝), 사고피폭(事故被曝), 내부피폭(内部被曝), 외부피폭(外部被曝), 피폭선량(被曝線量), 반감기(半減期), 발암(發癌), 각종 암癌(e.g. 갑상선암甲状腺癌), 백혈병(白血病) 등

c. 방사성 물질 등 원전 과학 핵심 어휘

방사성 물질(放射性物質), 핵연료(核原料), 죽음의 재(死の灰), 낙진물(放射能降下物), 플루토늄(プルトニウム), 우라늄(ウラン), 스트론튬(ストロンチウム), 세슘(セシウム), 토륨(トリウム), 트리튬(トリチウム), 요오드(ヨード), 알파선(アルファ線(α선線)), 독성(毒性), 맹독(猛毒), 오염수(汚染水) 등

d. 보도 관련 핵심 어휘

대본영(다이혼에大本営), 보도자제(報道自製), 발표 저널리즘(発表ジャーナリズム), 억측(憶測), 소문(噂), 뜬소문(風評), 유언비어(デマ・流言), 우려(憂え), 불안(不安), 염려, 과민반응(過敏反応), 패닉(パニック), 공포恐怖(공포심恐怖心), 부채질, 진실(眞実), 은폐(隱蔽), 왜곡(歪曲), 실내취재(室内取材), 수치조작(數値操作), 냉정(冷靜), 응원(応援) 등

e. 원전 반대여론 관련 핵심어휘 : 반원전反原發, 탈원전脱原發, 원전중지原發中止, 가동중단稼働中斷(가동중지稼働中止) 등

f. 기타 핵심 어휘 : 최악, 큰일, 재난, 재앙, 미증유 등

7) INES의 최고 등급은 '7'(심각한 사고)로, 각주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6년의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 사고가 여기에 해당하며, 1979년의 스리마일 섬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5'(시설 밖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고)였으며, 1999년의 東海村JCO臨界事故는 '4'였다.

4. 본론

4.1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기사에 대한 정성적 분석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방사능이 유출된 일본의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의 3호기는 ‘플루서멀’ 발전을 실시하고 있었다. ‘플루서멀’ 발전이란 사용이 끝난 핵연료에 1%정도 포함되어 있는 ‘플루토늄’⁸⁾과 원전의 연료로 사용되는 우라늄을 혼합한 ‘MOX 연료’를 이용하는 발전방식으로, 이 때문에 사고 후 그 지역 일본인들은 3호기에서 플루토늄이 누설된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와 같은 불안은 일본의 초기 재난 보도에서 나타나는데, 다음의 (4)와 같이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 후인 3월 13일에 플루토늄에 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요미우리신문은 (4)a와 같이 3호기가 플루서멀 발전이었다는 사실을 타 신문보다 빠르게 기사화 했다. 그 외에도 (4)b·c와 같은 문맥 안에서도 플루토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기사에 등장한다.

(4) [플루서멀 및 플루토늄 관련 신문 기사] - 후쿠시마

- a. 「福島第一原発3号機も給水機能喪失 1号機放射能漏れ 190人被曝の可能性」
3号機では昨年9月から、使用済み核燃料から取り出したプルトニウムを混ぜた核燃料(MOX燃料)を炉内に入れて発電する「プルサーマル」を実施していた。⁹⁾
読売新聞・2011年03月13日夕刊号外1面
- b. 「不安、他の原発も 4基、安全確保まだ東日本大震災・福島原発事故」
今すぐにはないにせよ、プルトニウムなどを含む使用済み燃料が熱で損傷して外部に漏れ出す恐れがある。¹⁰⁾
朝日新聞・2011年03月14日朝刊3面総合
- c. 原子炉内にある核燃料は、使い終わった後も熱を放出し続ける。この使用済み核燃料には、毒性の強いプルトニウムなどの放射性物質が含まれており、人体に大量に入ると、がんなどの深刻な被害をもたらす。¹¹⁾
読売新聞・2011年03月19日東京朝刊29頁

8) 플루토늄은 2만 4100년(플루토늄 239)의 긴 반감기를 갖고 있는데, 이 물질이 체내에 축적되어 내부피폭이 일어나게 되면, 높은 확률로 암을 유발시킨다. 또한 무게당 피폭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α선을 배출하는 여타 방사성 물질보다 압도적으로 피폭량이 많아 매우 위험한 방사성 물질이라고 볼 수 있다.

9)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도 급수기능 상실 1호기 방사능 누출 190명 피폭가능성」
3호기에서는 작년 9월부터, 사용이 끝난 핵연료로부터 추출한 플루토늄을 섞은 핵연료(MOX 연료)를 원자로 내에 넣어 발전하는 플루서멀 발전을 실시하고 있었다.

10) 「불안, 다른 4개의 원전도 안전 확보는 아직. 동일본대지진 후쿠시마원전사고」
지금 당장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플루토늄 등을 함유한 사용이 끝난 핵연료가 열에 손상을 입어 외부에 흘러나올 우려가 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다룬 신문기사에 대한 전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정 시점 이후 일본 내 주요 전국지에서 '플루토늄'을 언급한 기사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마치 보도를 규제하거나 자제하는 것과는 같은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해외의 연구자들의 경우, 플루토늄 발전의 폭발사고와 플루토늄의 확산 및 흡입이 가장 위험한 사태라고 지적하면서, 「もしも『いま直ちに危険はない』を聞いたら, なるべく遠くに, なるべく早く逃げなさい」と発言していたほどであった¹²⁾(大沼安史『世界が見た福島原発災害—海外メディアが報じる真実』緑風出版, 2011년. 52-55). 따라서 만일 이와 같은 일본 미디어의 보도태도가 설령 패닉을 방지하기 위한 신중보도였다고 하더라도 해도 이는 일부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이와 같은 정보를 가급적 빠르게 알려져 추가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피해를 막아야만 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사히신문은 3월 16일 조간을 통해 다음의 (5)a과 같이 나카가와 게이치中川恵一도쿄대학 부교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마치 이 기사만을 참고하자면 일반 시민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5) [아사히신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보도와 내부 대처 방안의 차이]

a. 「被曝、どう防ぐ 東日本大震災・福島第一原発事故」

○長期的影響も考えにくい

100ミリシーベルト以下ならば、健康上の問題になるレベルではない。福島第一原発から離れた場所で測定されている毎時数マイクロシーベルト(1ミリシーベルトは1千マイクロシーベルト)という放射線量ならば、健康への影響はないと考えていい。長期的にも健康に影響が出るレベルに達するとは考えにくい。¹³⁾

朝日新聞・2011年03月16日朝刊特設G

b. 「取材と安全、両立に悩む 原発事故、朝日新聞の報道態勢 新聞週間特集」

……当時、記者管理の責任者であるゼネラルマネージャー兼報道局長だった杉浦信之が語る。

『大変だ』と強い危機感を持ったのは、3月12日午後の1号機の水素爆発だった。夜になり

11) 원자로 내에 있는 핵연료는, 사용이 끝난 후에도 열을 계속해서 방출한다. 이 사용이 끝난 핵연료에는 강한 독성을 가진 플루토늄 등의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인체에 대량으로 들어가면 암 등의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다.

12) “만약 ‘지금은 위험하지 않다’고 들었다면 가능한 멀리, 가능한 빨리 도망가라”고 말할 정도였다.

13) 「폭폭, 어떻게 막을 것인가 동일본대지진·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장기적 영향도 생각할 수 없어

100밀리 시버트 이하라면 건강상의 문제가 되는 레벨이 아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측정되고 있는 매 시간 수 마이크로 시버트(1밀리 시버트는 1천 마이크로 시버트)의 방사선량이라면 건강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해도 좋다. 장기적으로도 건강에 영향이 나타나는 레벨에 다다를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政府は避難指示を原発から半径20キロに拡大したが、その後に社内で検討し、チェルノブイリ事故での避難と同じ半径30キロから外に出て、屋内取材を中心にするよう福島の記事に指示した」¹⁴⁾

朝日新聞・2011年10月15日朝刊東特集H

하지만 아사히신문의 스기우라 노부유키杉浦信之 당시 제너럴 매니저 겸 보도국장은 실제로는 (5)b와 같이 정부의 발표보다 더욱 엄격한 사내 보도방침을 세웠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아사히신문사는 정부의 반경 20킬로미터 밖으로 대피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와 같은 정부의 발표를 민간에게 전달했지만, 실상은 정부의 지시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도 내용과 내부 대처 및 방침의 불일치는 신문사에 대한 신뢰를 매우 떨어뜨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는데, 왜냐하면 신문사가 정부 발표보다도 자사의 ‘안전권(安全圏)’을 넓게 잡고 있으면서도 대중에게 이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정확한 수치는 이어서 언급을 하겠지만 1986년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 일본의 신문은 다음의 (6)과 같이 ‘죽음의 재(死の灰)’라는 단어를 빈번히 사용했으나, 이번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보도의 경우 아사히, 마이니치, 요미우리, 니혼게이자이 각 신문의 ‘죽음의 재(死の灰)’라는 단어의 사용빈도가 매우 낮아, 마치 해당 어휘의 사용을 회피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인상마저 준다. 이는 죽음의 재(死の灰)라고 하는 키워드가 사실 방사성 물질 혹은 방사성 낙진물을 가리키는 말에 지나지 않지만, ‘죽음’이라는 표현에서 오는 부정적 이미지에 더해 방사능 물질에 의한 피폭 후 사망이라고 하는 방사능에 대한 공포를 극대화 하는 키워드로서 일본인에게 인식되는 표현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6) [체르노빌 원전사고 보도 - 죽음의 재(死の灰)]

a. 建設予定地は香港から六〇キロメートルほどしか離れていないため、チェルノブイリ原発のような事故が起これば死の灰の直撃や、……

日本経済新聞・1986年08月16日朝刊17ページ

b. 放射性物質の降下量は、健康に影響を及ぼすほど大きくないが、原発事故で“死の灰”が

14) 「취재와 안전의 양립에 고민 원전사고, 아사히신문의 보도태세 신문주간 특집」
…… 당시 기자관리의 책임자였던 제너럴 매니저 겸 보도국장이었던 스기우라 노부유키杉浦信之가 밝힌다.
“‘큰일이다’라고 하는 강한 위기감이 든 것은 3월 12일 오후 1호기의 수소폭발 때였다. 밤이 되자 정부는 피난 지시를 원전에서 반경 20킬로로 확대하였으나, (아사히신문은) 이후 내부적으로 검토한 끝에 체르노빌 사고에서의 피난 때와 같이 반경 30킬로 이상 떨어져서 실내 취재를 중심으로 수행하라고 후쿠시마의 기자에게 지시했다.”

成層圏に滞留したことがわかったのは初めて。あらためてチェルノブイリ原発事故のすごさを物語っている。

毎日新聞・1987年11月15日東京朝刊13頁3面

c. 講演は、チェルノブイリ原発事故をきっかけに… 中略 …乗組員は死の灰を浴びながらも日本に帰還を果たした英雄だと指摘した。

朝日新聞・2013年08月19日岡山全県・1地方

d. チェルノブイリの死の灰は、西欧では西ドイツ、イタリア、フランスに最も多く降り注いだ。

読売新聞・1987年04月26日東京朝刊外電05頁

c.f. スリーマイル島事故では格納容器によって… 中略 …この燃料の燃えたあとの核分裂生成物(死の灰)が漏れるとどのくらいの放射能が出るかは場合によると思う。

朝日新聞・1986年04月30日夕刊らうんじ

예를 들어 요미우리신문은 2011년 3월 11일부터 2016년 2월 1일까지 총 49,065건의 기사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관해 다루었는데, 이 중 키워드 ‘죽음의 재死の灰’를 언급한 기사는 12건에 불과했다(12/49,065, 0.02%). 그러나 같은 요미우리신문은 위 (6)d과 같이 1986년 4월 26일부터 동 2016년 2월 1일까지 총 4,353건의 기사를 통해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관하여 다루었는데, 여기에서는 총 31건의 기사에서 ‘죽음의 재死の灰’를 언급했다(31/4,353, 0.7%). 즉, 요미우리신문은 국외에서 발생한 원전사고의 기사에서만 압도적으로 많은 횟수로 (약 35배) 원전사고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키워드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체르노빌에서 나온 방사성물질인 방사성 요오드가 홋카이도 등 일본 지역에서도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의 과학기술청은 “지금 시점에서 건강에 영향을 줄 만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원전사고에 의한 방사능 오염의 정도를 축소하는 취지의 발표를 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이 ‘플루토늄’과 ‘죽음의 재’와 같은 어휘의 사용 양상을 정성적으로 검증해 보고 그 일부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일본의 주요 전국지는 소위 국민들의 ‘패닉’이나 ‘소문에 의한 피해’를 경계하기 위해 방사능 오염에 관하여 억제적인 보도를 통해 진실을 감추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해 현대의 일반인들은 이전보다 더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신문 등 미디어 독자들의 정보 수집 능력은 다양한 미디어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비교해 볼 때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그러한 와중에,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같은 ‘비상사태’가 일어나기라도 한다면, 일반 대중들은 가능한 한

스스로 정보를 모으고자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비교하며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고자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신문이 억제적인 보도를 하며 자사의 대응을 정직하게 공표하지 않는다면, 대중들은 신문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품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이와 같은 정성적인 분석 외에도 계량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같은 일본 신문의 일본 내의 원전사고에 대한 보도태도와 일본 외 타국의 원전사고에 대한 보도태도를 다양한 텍스트 자료와 키워드를 통해 다각도에서 비교 대조 분석하여 일본 내 원전사고에 대한 보도 태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해내고자 한다.

4.2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기사의 핵심어휘에 대한 정량적 분석

본 연구에서는 표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본 4개 전국지가 보도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비 후쿠시마 원전사고(스리마일 섬·체르노빌 원전사고)의 텍스트 데이터를 3.2.2절에서 언급한 (3)와 같은 ‘원자력발전소 사고 관련 기사 핵심 어휘(키워드)’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정량적인 분석을 실시했다.

4.2.1 원전사고 현황 및 건강 관련 핵심어휘

먼저 아래 표2①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계사고(臨界事故)’, ‘멜트 다운(メルtdown)’, ‘노심용해(炉心融解)’ 등 원전사고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핵심어휘를 종합하여 추출한 결과, 상대적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보다 비 후쿠시마 원전사고 기사에서 이와 같은 어휘를 찾아보기 쉽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여러 어휘 중에서도 원폭 피해와 다름없는 심각한 방사능 누출 사고를 나타내는 표2②a의 ‘임계사고’와 같은 어휘에는 이와 같은 경향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임계사고가 의심 혹은 경고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일본 내 신문들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기사에서 극단적으로 사용이 자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7:46, 약 7배). 이는 1999년 이바라기현(茨城県)에서 있었던 도카이 무라JCO임계사고(東海村JCO臨界事故)로 인해 사망자 2명을 포함해 667명이 피폭된(2000년 기준) 일본최초의 원전사고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표2③b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원전사고로 인한 질병에 관한 어휘 또한, 비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기사 1,000건당 262개의 어휘가 사용되어 상대적으로 빈번히 기사에서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기사에서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기사 1,000건당 85건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의 신문들은 타국의 원전사고에 대해서는 원전 사고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어휘의 사용에 거리낌이 없었으며 이로 인한 질병과 관련된 어휘를 기사에서 언급하는 것에도 주저함이 없었으나, 자국 내에서 발생한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INES) 7단계(심각한 사고,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동일)를 기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관한 보도에서는 특정 어휘 사용을 자제하는, 즉 ‘정보 통제’와 같은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표2> 원전사고 현황 및 건강 관련 핵심어휘

事故 (총 기사수)	① 臨界事故(爆発)メルトダウン 炉心融解 炉融解 MOX MOX プ ルサーマル		② 臨界事故		③ 被爆(半減期)癌ガン 白血病	
	a. 총 어수	b. 1,000건당 어수	a. 총 어수	b. 1,000건당 어수	a. 총 어수	b. 1,000건당 어수
福島(85,535)	10335	120.83	571	6.68	7294	85.28
非福島(19,668)	3102	157.72	912	46.37	5158	262.25
배율		1.31		6.95		3.08

(7) [원전사고 현황 및 건강 관련 핵심어휘 예문] - 후쿠시마

- a. しかし、国の原子力行政そのものの信頼が根幹から揺らいでいる最中に、**臨界事故**隠しの過去がある同社トップが原発の安全性を訴えたところで世間がすんなり納得するはずがない。

日本経済新聞・2011年04月13日地方経済面北陸特集32ページ

- b. 「論点：放射線の長期的影響を考える」
被爆者の被ばくは、主にガンマ線による外部被ばくだが、アルファ線の内部被ばくについては、ラジウム夜光塗料を使っていた工員さんの**骨がん**や、トリウムを含む造影剤を投与された方の**肝がん**などが知られている。

毎日新聞・2011年04月29日東京朝刊11頁総合面

4.2.2 방사성 물질 관련 핵심어휘

이어서 원전사고의 결과로서 치명적인 방사능 오염원으로 언급될 수 있는 주요 방사성 물질 등 원전 과학 핵심 어휘의 사용 경향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표3과 같이 비교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우선 아래 표3①b와 같이 방사성 물질 관련 어휘 사용 또한 비 후쿠시마 원전사고 기사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 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72:212, 약 1.23배). 그러나 이와 같은 경향은 표3②b와 같이 단순 방사성 물질의 어휘가 아닌 ‘독성’, ‘맹독’, ‘오염’, ‘방사능 낙하물’ 등, 방사성 물질에 대한 공포가 여실히 드러나는 어휘 및 표현의 경우에 더욱 극명히 드러난다. 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기사 1,000건 당 약 19건의 이와 같은 어휘가 사용되고 있는 반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기사에는 고작 3건의 어휘가

사용되고 있을 뿐으로, 그 격차는 무려 6배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1절 (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3③b ‘죽음의 재死の灰’와 같은 방사능 물질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대표적 어휘를 따로 떼어 조사해 보면 기사 1,000건당 1.5:14.8, 즉 약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일본 내 신문들이 자국 내에서 발생한 원전사고에 대한 나름의 보도 지침, 즉 ‘자제’ 혹은 ‘축소’ 보도와 같은 나름의 방침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겠다.

<표3> 방사성 물질 관련 핵심 어휘

事故 (총 기사수)	① プルトニウム ウラン ストロンチウム セシウム トリウム トリチウム ヨード アルファ		② 毒性 猛毒 汚染 死の灰 放射能 降下物 フォールアウト 放射性物質		③ 死の灰	
	a. 총 어수	b. 1,000건당 어수	a. 총 어수	b. 1,000건당 어수	a. 총 어수	b. 1,000건당 어수
福島(85,535)	14748	172.42	277	3.24	132	1.54
非福島(19,668)	4162	211.61	376	19.12	291	14.80
배율		1.23		5.90		9.59

(8) [방사성 물질 관련 핵심 어휘] - 非후쿠시마

a. 「核不拡散、平和利用へ21世紀の針路探る プルトニウム国際シンポ」

また、運ぶ時にプルトニウムが数キロでも漏れたら、チェルノブイリ事故並みの汚染になる。

朝日新聞・1993年03月23日夕刊特集

b. チェルノブイリ原発のような事故が起これば死の灰の直撃や、中国から供給を受けている水の汚染といった事態が予想される、…

日本経済新聞・1986年08月16日朝刊7ページ

4.2.3 보도 관련 핵심어휘

그렇다면 정작 신문 각사는 스스로의 보도 태도 혹은 자세에 관해서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표4①b와 같이 ‘거짓보도’, ‘은폐’, ‘보도자제’, ‘왜곡’, ‘수치조작’, ‘발표 저널리즘’ 등과 같이 앞서서 4.2.1·4.2.2절에서 언급한 일본 신문 각사의 태도라고 의심되는 핵심 키워드에 관한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보도 관련 핵심 어휘들이 실제로도 신문 각사의 비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기사보다 일본 내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관련된 기사에서 약 1.5배 더 많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신문 각사는 이와 같은 ‘은폐’, ‘왜곡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 혹은

배경에서 ‘보도 자제’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된 가설로서 일본 국민들의 ‘패닉’ 혹은 ‘불안’을 억제하고, ‘유언비어’나 ‘뜬소문’을 경계하고 ‘냉정’한 분위기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가정 하에 그와 연관된 핵심 어휘를 표4②b와 같이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예상했던 바와 같이 비 후쿠시마 원전사고 기사보다 월등히 많은, 기사 1,000건 당 119:20, 즉 약 6배의 수치로 해당 어휘들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기사에 다수 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일본 신문 각사는 ‘정확한 상황 보도’ 및 ‘정확한 정보 공유’를 추구하기 보다는 일본 국내의 안정을 위한 ‘자제 보도’를 명확한 보도 방침으로 삼아 기사를 작성하고 있음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보도에 대한 정성적인 조사를 실시할 때에 표③과 같이 ‘최악’, ‘미증유’ 혹은 ‘예상을 뛰어 넘는’ 등의 자극적인 수식어 들이 본 연구자의 눈에 많이 띄었으나, 정작 데이터에 기초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비해 비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이와 같은 어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각 신문사의 ‘자제 보도’ 태도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4> 보도 관련 핵심어휘

事故 (총 기사수)	①大本営 隠蔽 報道 自制 歪曲 数 値操作 発表 ジャーナリズム		②過敏反応 パニック 冷静風評 被害 デマ 流言		③最悪 未曾有	
	a. 총 어수	b. 1,000건당 어수	a. 총 어수	b. 1,000건당 어수	a. 총 어수	b. 1,000건당 어수
福島(85,535)	371	4.34	10158	118.76	1831	21.41
非福島(19,668)	57	2.90	394	20.03	681	34.62
배율		1.50		5.93		1.62

(9) [보도 관련 핵심어휘] - 후쿠시마

a. 「粘り強く検証を 真相に迫る役割に期待」

大本営発表との批判がある。命や健康に関わるこれだけの事故で、本来伝えられるべき情報が不足していたからだ。

日本経済新聞・2011年12月19日朝刊38ページ

b. 「東日本大震災：福島第1原発事故 あまおう風評被害 「海外輸出では日本産を敬遠」

毎日新聞・2011年03月25日西部朝刊19頁経済面

4.2.4 원전 반대여론 관련 및 기타 핵심어휘

이처럼 원전 사고에 관한 부정적인 핵심 어휘들은 신문 각사의 ‘자제 보도’ 경향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사고 기사보다 비 후쿠시마 원전사고 기사에서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반면 본 절에서 다루고 있는 ‘원전 반대여론’ 관련 핵심어휘에 관한 통계자료는 표5①b와 같이 다소 다른 관점에서 특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향후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는 전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일본 각 신문사는, 해외 원전사고 기사와 국내 기사에 있어서 그 보도 방침이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126.73:132.04, 약 1.04배). 이는 비록 각 신문사들이 패닉과 소문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선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국의 원전사고에 대한 정확한 보도보다는 ‘자제 보도’, ‘정보 통제’라고 하는 방침에 따라 기사를 작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외의 원전사고와 비교해 볼 때,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심각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국내의 원자력 발전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타국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적극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중심의 전력구조에서 탈피해야만 한다는 에너지 정책 개편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표5> 원전 반대여론 관련 및 기타 핵심어휘

事故 (총 기사수)	① 反原発反原子力脱原発脱原子力原発中止稼働中断稼働中止	
	a. 총 어수	b. 1,000건당 어수
福島(85,535)	10840	126.73
非福島(19,668)	2597	132.04
배율		1.04

(10) [원전 반대여론 관련 및 기타 핵심어휘] - 非후쿠시마

a. 史上最悪の原発事故と言われた米ペンシルベニア州スリーマイルアイランド原子力発電所の放射能漏れは、… 中略 … 科学者などが政府の責任を追及、“反原発”ののろしをあげ始めている。

日本経済新聞・1979年04月05日朝刊4ページ

b. ドイツが脱原子力を決めて4年がたった。… 中略 … ハノーバーで米スリーマイル島原発事故にからむ10万人デモがあり、…

毎日新聞・2004年08月12日東京朝刊6頁国際

5. 결론 및 금후의 과제

신문 기사에서 어휘의 사용은 기사의 성격과 방향을 규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신문 각 사는 큰 틀에서의 보도 방침에 따라 어휘 선택에 신중을 기하기 마련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해 일본의 매스미디어 그 중에서도 신문이 어떠한 보도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뿐만 아니라 일본 이외의 원전사고 두 건(스리마일 섬·체르노빌 원전사고)에 대한 신문 기사에 대한 정성·정량적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통해 원전사고 기사에 사용된 어휘 및 표현의 선정 및 구사에 대한 비교·대조 분석을 수행했다.

그 결과, 일본의 메이저 4개 신문사(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니혼케이자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해서는 외국의 원전사고와 확연히 다른 어휘 및 표현을 선택하고 있음을 규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일본의 신문 미디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해 ‘정확한 보도’, ‘사실의 규명 및 전달’, ‘시민의 안전’과 같은 가치보다 ‘사회 안정’, ‘패닉의 방지’, ‘불안 확산 저지’ 등의 목적을 우선하여 ‘과민반응’, ‘뜬소문’, ‘유언비어’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의 전달을 억제하거나 취사선택하여 보도하는 등, ‘억제보도’, ‘통제보도’를 실시했다는 것을 계량적으로 검증해 낼 수 있었다.

위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일본 내의 신문 각사의 기사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금후의 과제로 비슷한 시기의 한국의 언론 각사의 신문기사에 대한 분석과 비교 대조 분석하는 것을 통해 일본 미디어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보도태도를 더욱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일본과 한국의 재난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 태도를 고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參考文獻】

- 박지환(2012)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의 사회운동 -“아미추어의 반란”의 탈원전 데모를 중심으로-」 『日本研究論叢』 Vol.36, 현대일본학회, pp.31-55
- 송지혜(2012) 『국내 과학기자와 일반기자의 위험보도경향 비교연구 : 동일본대지진과 원전사고 보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영경·이미숙(2013) 『한·일 일간신문에 나타난 어휘의 사회문화적·언어학적 특징 연구 : 사회면을 대상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일반대학원
- 이연(2011) 「동일본 대지진에서 나타난 NHK와 KBS의 재난방송 비교」 『한국방송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1 No.7, 한국방송공학회, pp.143-147
- 정미애(2012) 「동일본대지진에 대한 일본 시민사회의 대응」 『동서연구』 Vol.24 No.1, 연세대학교 동서문제

연구원, pp.141-162

- 최봉석 외(2011)「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에 대한 국가책임-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을 중심으로-」『環境法研究』Vol.33 No.1, 한국환경법학회, pp.225-251
- 홍선화(2012)『한국 언론과 일본 언론의 재난보도 뉴스구성에 관한 연구 : 동일본대지진 관련 한일 공영방송 (KBS와 NHK) 저녁 종합뉴스 내용 분석』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 ロシアNIS貿易会(2011)「東日本大震災に関するロシアの報道振り」『ロシアNIS経済速報』(1530)、ロシアNIS貿易会、pp.11-14
- 岡本厚(2012)「テレビ報道番組 東日本大震災の実相をいかに捉えるか(特集 平成24年日本民間放送連盟賞)-番組部門」『月刊民放』42(10)、コーケン出版、pp.18-20
- 瓜知生(2011)「3月11日、東日本大震災の緊急報道はどのように見られたのか」『放送研究と調査』61(7)、NHK放送文化研究所、pp.2-15
- 吉見憲二(2013)「東日本大震災後のテレワークに関する報道の変化に関する研究(論文部門、「実践」~地域を超えて。テレワークは次のステージへ)」『日本テレワーク学会研究発表大会予稿集』(15)、pp.10-13
- 大島慎子(2012)「東日本大震災における海外報道の変遷とその影響(大震災・原発報道を検証 メディアは役割を果たしたのか：新聞通信調査会委託研究を中間報告)」『メディア展望』(604)(臨増)、pp.27-31
- 大沼安史(2011)『世界が見た福島原発災害—海外メディアが報じる真実』緑風出版
- 藍原寛子(2012)「原発事故と放射能リスクをどう報じるか：現場を丹念に歩くことで見えてきたもの(東日本大震災と報道)」『新聞研究』(732)、日本新聞協会、pp.52-55
- 鈴木雄雅他(2012)「東日本大震災(特に福島原発事故)に関する内外メディアの報道検証 および東アジアにおけるマス・メディアの規範理論構築の研究(大震災・原発報道を検証 メディアは役割を果たしたのか：新聞通信調査会委託研究を中間報告)」『メディア展望』(604)(臨増)、新聞通信調査会、pp.18-23
- _____ (2013)「東アジアにおけるマス・メディア規範理論構築への手がかり : 3・11東日本大震災及び福島原発事故報道から」『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43)、上智大学コミュニケーション学会、pp.61-78
- 雷紫雯「東日本大震災をめぐる中国の新聞報道についての考察：グローバル時代における国際報道の可能性の視点から」『国際広報メディア・観光学ジャーナル』16、北海道大学大学院国際広報メディア・観光学院、pp.105-124
- 龍崎孝 他(2011)「「伝え続ける」放送の責任を自覚--JNNの震災報道(東日本大震災と報道(第3回))」『新聞研究』(721)、日本新聞協会、pp.26-29
- 伴楚行則他(2013)「京都市に流通する食品中の放射性物質の実態調査(1991~2011年)：一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事故前後の比較-」『食品衛生学雑誌』54(3)、日本食品衛生学会、pp.178-187
- 浜田信行(2011)「福島原子力発電所事故での食品安全規制の課題と改善策」『電力中央研究所報告、L』(11001)、電力中央研究所原子力技術研究所、pp.1-28
- 松山徳之(2011)「現地レポート 東日本大震災に何を見たのか 震災報道で変わる中国の意識 巨大技術 モラル教育を自省」『ニューリーダー』24(8)、はあと出版、pp.26-29
- 神保哲生(2011)「原発報道の問題点 すべては事故以前の報道に起因する(検証東日本大震災とメディア(前編))」『ぎやらく』(507)、放送批評懇談会、pp.29-31
- 原子力災害対策本部(2011)「国際原子力機関に対する日本国政府の追加報告書：東京電力福島原子力発電所の事故について(第2報)概要」『政策特報』(1390)、自由民主党資料頒布会、pp.48-83
- 越塚誠一(2012)「政府の福島原子力発電所事故の調査・検証結果の報告」『日本原子力学会誌』54(10)、日本原子力学会、pp.642-646

- 伊藤直哉(2012)「東アジア諸国は東日本震災報道をどのように受容したか? : 韓・台・中リスク構造の比較実証研究(特集 東アジアとメディアの新たな可能性: 東日本大震災をめぐって)」『国際広報メディア・観光学ジャーナル』(15)、北海道大学大学院国際広報メディア・観光学院、pp.23-56
- 伊沢尚記(2012)「ニッポン放送の防災と災害報道への取り組み: 30年の蓄積とノウハウを生かして(東日本大震災と報道: 防災・減災のために)」『新聞研究』(731)、日本新聞協会、pp.37-41
- 赤塚雄三(2012)「東日本巨大津浪災害 福島原子力発電所爆発 2011年3月12日(東日本大震災特集号)」『国際地域学研究』(15)、東洋大学国際地域学部、pp.1-17
- 中森広道(2011)「東日本大震災」におけるマス・メディアと報道の課題(特集 災害と情報)『都市問題』102(9)、東京市政調査会、pp.4-9
- 青山道夫(2011)「福島原子力発電所事故による海洋汚染(緊急特集 原発事故による環境の放射能汚染と人体影響)」『理大科学フォーラム』28(11)、東京理科大学、pp.42-45
- 総合ジャーナリズム研究(2011)「海外のマスコミ報道から 世界はフクシマをどう受け止めたか(東日本巨大地震を伝えたか)-(全記録/東日本大震災~地震・津波・原発…報道)」『総合ジャーナリズム研究』48(3)、東京社、pp.47-51
- 土山希美枝(2012)「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事故初期における情報の公表とその受容: 国会事故調報告書・政府事故調報告書から」『龍谷政策学論集』2(1)、龍谷大学、pp.65-71
- 桶田敦(2012)「防災機関としてのテレビ: 3・11でその使命は果たせたのか(東日本大震災と報道: 防災・減災のために)」『新聞研究』(731)、日本新聞協会、pp.42-46
- 花田達朗(2012)『新聞は大震災を正しく伝えたかー 学生たちの紙面分析』早稲田大学出版部
- 上杉隆・鳥賀陽弘道(2012)『報道災害【原発編】事実を伝えないメディアの大罪』幻冬舎
- 株式会社野村総合研究所(2011)「震災に伴うメディア接触動向に関する調査」
<https://www.nri.com/jp/news/2011/110329.html>(검색일:2016년 10월 01일, 이하 동일)
- 朝日新聞(聞蔵IIビジュアル) <http://www.asahi.com/information/db>
- 読売新聞(ヨミダス歴史館) <http://www.yomiuri.co.jp/database>
- 毎日新聞(マイサク) <http://mainichi.jp/contents/edu/maisaku>
- 日本経済新聞(日経テレコン21) <https://t21.nikkei.co.jp>

논문투고일 : 2016년 12월 30일
 심사개시일 : 2017년 01월 06일
 1차 수정일 : 2017년 01월 30일
 2차 수정일 : 2017년 02월 05일
 게재확정일 : 2017년 02월 15일

〈要旨〉

일본 미디어의 동일본대지진 원자력발전소 사고관련 어휘 선정 및 구사에 관한 연구
- 후쿠시마와 타국의 원자력발전소 사고기사의 보도태도에 대한 비교·대조를 중심으로 -

김유영

신문 각 사는 기사의 성격과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어휘 선정 및 구사에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결과적으로 신문의 보도태도 혹은 보도방향을 반영하는 척도가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국에서 일어난 원전사고 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해 일본의 매스미디어 그 중에서도 신문이 어떠한 보도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뿐만 아니라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원전사고 두 건(스리마일 섬·체르노빌 원전사고)에 대한 신문 기사에 대한 정성·정량적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통해 원전사고 기사에 사용된 어휘 및 표현의 선정 및 구사에 대해 비교·대조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일본의 페이지 4개 신문사(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는 자국에서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해서는 외국의 원전사고와 확연히 다른 어휘 및 표현을 선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일본의 신문 미디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해 ‘정확한 보도’, ‘사실의 규명 및 전달’, ‘시민의 안전’과 같은 가치보다 ‘사회 안정’, ‘패닉의 방지’, ‘불안 확산 저지’ 등의 목적을 우선하여 ‘국민반응’, ‘뜬소문’, ‘유언비어’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실’의 전달을 억제하거나 취사선택하여 보도하는 등, ‘억제보도’, ‘통제보도’ 즉,大本營(大本營) 보도를 실시했다는 것을 계량적으로 검증해 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일본 신문 각사의 보도태도에 대한 분석은 앞으로 미디어 본연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생각함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와 동시에 일본 이외의 국가들에게는 반면교사의 사례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basic lexicons & the lexicon-use Behaviour of
Japan newspaper on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article

- Focu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about Fukushima and the other country's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article -

Kim, Yu-Young

The use of words in newspaper articles is an important element in defining the nature and direction of the article. Therefore newspapers are carefully chosen vocabulary and speaking according to a report policy. So in this study, to consider what kind of report attitude did the newspaper of Japan take about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 compared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and other countries (Three Mile Island, Chernobyl accident) by conducting a qualitative, quantitative evaluation.

As a result, four major Japanese newspapers (Yomiuri, Asahi, Mainichi, Nihon Keizai) were able to be identified that they selected a totally different vocabulary and expression on Japan's Fukushima nuclear accident but foreign nuclear accident. In other words, the newspaper of the Japan was concerned with 'social stability', 'anti-panic', 'arresting the spread of fear' over 'accurate reporting', 'investigating fact and report', 'safety of citizens'. And the newspaper of the Japan suppressed the transmission of 'fact' and selected the 'fact' by using words like 'hypersensitivity', 'a groundless rumor'. This may be called "inhibiting Press", "Press control".